

박수를 치면 온 몸으로부터 모혈에 모인 사기(邪氣=마귀)가 박살나!

편집자 주 : 승리제단에 처음 나오게 된 새식구가 제일 궁금해하면서 의아하게 여기는 것은 구세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도들의 자세, 즉 무릎을 꿇고 손뼉을 치면서 찬송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배자세는 생소하여 약간의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구세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에 대하여 상세히 문답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너희 만민들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시편 47:1)”
“作掌作掌作掌弓 血脈貫通作掌弓 작장작장작장궁 혈맥관통작장궁(弄弓歌)”

예배 중에 이기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자.

승리제단에서 예배보는 법 ①

전도자 : 제단에 처음 나오시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새식구 :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승리제단에 와서 예배보는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예배의 자세와 형식에도 분명히 깊은 뜻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저처럼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나 수행을 하다 오신 분들에게는 무척 낯선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겁니다.

전도자 : 아주 당연한 의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왔을 때 마찬가지로 충격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곧 예배 자세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릎 꿇는 자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신일여(心身一如) 즉, 몸이 바로 서야 마음이 바로 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기의 흐름과 마음이 모두 흐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도(道)에서는 아랫배에 힘을 주고 척추를 바로 세워 코끝과 배꼽이 일직선으로 일치하는 바른 자세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무릎을 꿇는 자세는 금강좌라 하며 요가, 불교의 선(禪), 우리나라의 고유의 행법에서 많이 쓰던 자세입니다.

금강좌는 결가부좌, 반가부좌 등의 다른 어떤 자세보다도 골반을 긴장,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고 특히 허리 뒤에 있는 명문혈(命門穴)을 열어주는 자세입니다. 명문혈은 제 2, 3요추 사이에 있는 혈(穴)자리인데 이 혈은 말 그대로 '생명의 문'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단전과 더불어 원기(元氣)가 생성되는 곳으로서 '후단전(後丹田; 몸 뒤에 있는 단전)'이라고 불리우는 중요한 혈입니다. 자동차에서 기름구멍과도 같은 곳이라 할 수 있겠지요. 실제로 단전 호흡에서는 이 명문혈에 직접 기를 넣어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강좌는 이긴자계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감로이슬을 받기에 가장 좋은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는 진정한 뜻은 그 몸자세보다는 마음 자세, 즉 체법(體法)이 아닌 심법(心法)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나'를 죽이고 짓이기는 곳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기 위해 노력하는 곳입니다.

또한 이기신 하나님께서는 찬송할 때 진심으로 울부짖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지극한 심정으로 하셨기에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도 5분만 찬송하시면 온 몸이 땀으로 젖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은혜를 당길 때 들어 주시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었습니까. 앞으로는 지금 말씀 드린 것들을 참고하시어 열심히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새식구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수를 치는 것은 아무래도 거북하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도자 : 그럼 먼저 기(氣) 차원에서 접근해 봅시다. 인체에는 14경락과 기경 8맥 그리고 657개의 경혈이 있습니다. 경락이란 간단히 말해서 생명의 기운인 기가 인체 속에서 흐르는 길을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혈액이 흐르는 길인 혈관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혈(經穴)이란 경락을 따라 몸속을 흐르는 기가 신체 외부와 교류하는 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체 내부와 외부로 기(氣)가 드나드는 창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경락과 경혈이 온몸에 퍼져있어서 기의 흐름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온 몸의 경혈과 경락이 손 전체에 그대로 복사된 듯이 옮겨져 분포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어 수지침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생각해 보십시오. 손뼉을 세게 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손바닥 전체에 수지침을 가득 꽂은 것과 같으며 따라서 몸 전체에 침을 놓은 것이 되어 온 몸의 경락을 뚫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확실한 건강법도 드물 겁니다.

또한 이긴자계에서는 손바닥 사이에서 마귀를 박살내는 심정으로 박수를 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의학적으로도 정확한 말씀입니다. 최고의 한의학서인 황제 내경에 의하면, 신체에는 유혈(俞穴)과 모혈(募穴)이라는 중요한 혈이 있는데 유혈은 우주에서 병기운을 머금은 사기(邪氣)를 받아들이는 혈자리로서 척추를 따라 등쪽에 분포하며 모혈은 이 유혈을 통해 들어온 사기가 따로 모이는 자리로서 유혈과는 정반대로 가슴과 배쪽에 분포합니다.

수지침상으로 보면 유혈은 손등에 모혈은 손바닥에 분포하게 됩니다. 따라서 박수를 치면 손바닥의 모혈을 강하게 때리게 되니 온 몸으로부터 모혈에 모인 사기(邪氣)=사령(邪靈)=마귀를 박살내는 것이 됩니다. 손바닥 사이에서 마귀를 죽이라는 이긴자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도에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성자로 추앙받는 라마 크리슈나는 “끊임없이 힘차게 영원한 어머니(하나님)를 부르며 미쳐야 한다. 지금 이 시대에 알맞은 수행법은 열정적인 예배와 기도로서 신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조용한 명상보다 훨씬 빠른 결실을 가져다준다. 신의 성(城)은 기습적으로 빼앗아야 한다.” 하며 자신도 아침저녁으로 손뼉을 치며 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합니다.

이곳에는 손바닥이 갈라져 피가 터져 나오는 것도 모를 정도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손뼉을 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를 짓이겨 죽이는 순간이오 나는 사라져버리고 오직 이기신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순간이라 할 수 있겠지요.

승리제단에서 예배보는 법 ②

전도자 : 이제 박수치는 것에 대한 의혹이 어느 정도 풀리지 않으셨는지요?

새식구 : 예, 그런데 예배 도중에 옆에 계신 분이 이기신 하나님의 눈을 보라고 하시던데 거기에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전도자 : 예, 있습니다. 동서양의 모든 수행에서는 고도의 집중을 그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요가나 신지학(神智學)의 행법을 보면 처음엔 촛불이나 꽃 등의 간단한 대상을 가지고 명상훈련을 해서 미간에 있는 제 3의 눈인 아즈나 차크라를 개발합니다.

이 집중에는 3단계가 있는데 다라나(일심 집중), 디아나, 사마디히(삼매의 경지)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촛불이나 꽃을 명상하는 것은 연습에 불과하고 영적 스승이나 신에 대한 명상을 통해 사마디히에 이르는 것이 최고의 경지라고 합니다.

또한 대승불교 중 정토교(淨土敎)에는 건불관(見佛觀), 관법(觀法) 13종이라는 행법이 있습니다. 이 수행법은 13단계가 있는데 제 1단계는 일상관(日想觀)으로서 태양을 명상합니다. 제 2단계 수상관(水想觀)은 호수면을 명상합니다. 제 3단계 화좌관(華座觀)은 부처님이 앉으신 연꽃자

리를 명상하여 삼매를 이룹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여 마지막 제 13단계가 진신관(眞身觀)인데 이것은 삼매의 경지에서 상상이 아닌 실제 생미륵 부처님을 관(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생에 걸친 수련과 고행을 해도 제 13단계 진신관에 이른 사람은 정토교 역사를 통틀어 몇 분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평생 동안 뼈를 깎는 고행과 노력으로도 한 번 바라보기조차 어려웠던 그분, 생미륵 부처님의 진신(眞身)을 뵈 수 있다는 것을 과연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긴자의 말씀에 따르면 눈과 귀와 생각이 신(神)이 드나드는 통로인데 따라서 이기신 하나님을 고도로 응시하면 그 하나님의 신이 눈길을 통해 들어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기신 하나님, 생미륵 부처님을 고도로 사모하고 집중하여 그 신을 받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삼매요, 동서 모든 수행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예배의 형식에 대해 여러 각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고 순종하는 자세로, 나를 짓이겨 없애겠다는 각오로 예배를 보으로써 하나님의 신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 소주천(小周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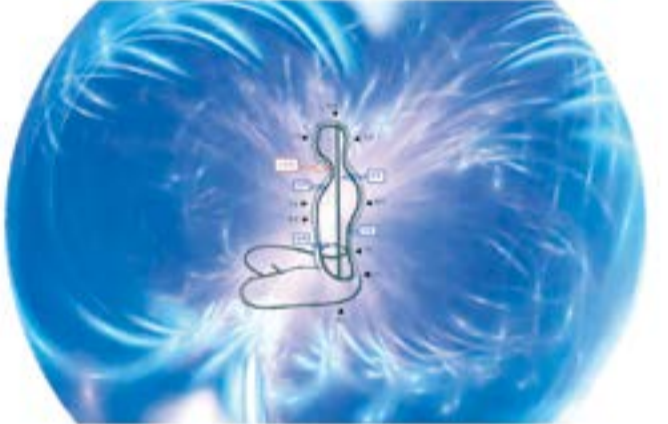
축기(蓄氣)된 진기(眞氣)가 스스로 발동하여 기경8맥의 독맥(몸의 후면), 임맥(몸의 앞면)인 몸의 앞뒤를 크게 원을 그리듯 한 바퀴 회전시키는 것을 뜻하며 '소주천'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신체의 대부분의 병은 거의 호전 또는 치유될 정도로 엄청난 효과가 나타납니다.

진기가 임독맥을 따라 회전하는 느낌(기감)은 마치 매우 뜨겁고 강한 물줄기가 펌핑(pumping)하는 느낌이며 이때 막혔던 혈이 풀리면서 일시적인 심한통증(명현현상)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매일 소주천을 돌리게 되면 점점 기감이 약해지는데 이는 막혔던 혈이 풀려서 자연스러운 회전이 된다는 것을 뜻하며 진기가 계속 만들어져 임독맥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단전호흡을 수련하여 소주천을 달성하게 되면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듯이 쉬운 단계는 아닙니다.

물이 넘치면 통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단전에 모여진 진기가 넘치면 '회음'에서 '미려', '명문'으로 흐르고 상체와 하체의 상호 연결통로인 '대맥'을 회전하여 막혔던 혈을 뚫은 후 '독맥'을 따라 '혈척', '육침', '백회'까지 올라갔다 '인당'으로 내려와서 '임맥'을 따라 '단중', '항정'을 거친 후 '회음'을 지나 단전으로 다시 들어가는 경로입니다.



○ 연기화신(煉氣化神), 성명합일(性命合一)

채약(採藥)을 이룬 후 상단전을 개발하여 온몸을 진기로 만드는 수련이며 진기수련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 삼라만상의 기운을 받아들여 정(精)이 기(氣)가 되고 기(氣)가 신(神)이 되어 '성명합일'의 경지가 됩니다.

상,중,하단전 세 곳 모두에 흰빛의 단(丹)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몸속의 기(氣)를 빛으로 볼 수 있는 단계로 건강자원을 넘어 도(道)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자신의 몸은 물론 타인의 기를 볼 수도 있고 기를 움직여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투시능력을 도안(道眼)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출처_ <https://band.us/band/55134637/post/927096083>

전세계에 알리는 진짜 경전 이야기 40회

전 세계여 모두 깨어나자!

< 빨리 도통하려고 하는 것 2탄 >

변화무쌍한 마음가짐으로는 안된다

4. 그것도 내가 하는 것으로는 되어지지 않고로 '하나님이 오셔서 맡겨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주장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긴 것을 또 맡겨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5.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가운데 혹 내가 맡긴 부분이 있다손치더라도 하나님이 맡긴 것으로 쳐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니 마귀가 맡겨줘야 헛일이었다.

6. 이런 영의 싸움을 했던 것이다.

7.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므로 마음에 하나님의 신이 담겨지면 누구나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이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죄는 마귀니까 죽여 없애야 도통이 된다

1. 죄라는 것이 사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2. 죄는 마귀인고로 마귀는 죽여야 없어진다.

3. 그 마귀를 죽이는 자가 나오지 않으면 죄를 해결할 자가 없다.

4. 나라는 주체의식을 죽이는 비결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나오기 전에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 수가 없었다.

5.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것이 나라는 것을 죽이는 비결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기면 그가 하나님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마귀는 의지하는 습성이 있고, 특권의식이 있다

1. 죄인이 석가나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2. 마귀는 의지하는 습성이 있다.

3. 마치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사상이다.

The way is impossible with a changeable mind.

4. That is not accomplished by myself, "God, please come to me and make me bequeath myself to You, lead and be resolute. God bequeath what you bequeathed", This Man could not but pray like that.

5. During God's bequeathing, if This Man bequeathed a little, accept it as you bequeathed. It was a vain effort for Satan to bequeath.

6. This Man fought this kind of spiritual fighting.

7. God's mind is God's spirit, God's spirit is God, if people have

God's mind, and they become God. It is simple and easy to understand.

As sin is Satan, after killing it, you attain spiritual enlightenment.

1. Sin does not disappear by forgiving.

2. As sin is Satan, Satan disappears after He is killed.

3. If the person who can kill Satan does not appear, then there is nobody to solve sin.

4. Before a person has the secret of killing their self-awareness, making people God is impossible.

5. Therefore, regarding anybody as your body is the secret of killing

'I. If people regard everybody as their bodies, live a sacrificial life and think of everybody as God, then those people will become God.

Satan has a habit of dependency and an awareness of privilege.

1. Sinful people do not receive salvation with just an allegiance to Buddha or Jesus.

2. Satan has a habit of dependency.

3. It is wrong if people believe in Jesus, and that He can give them salvation.*

by Hana

Real Scripture Stories to Tell the World—Episode 40

All over the world! Let All Wake Up!

< Trying to be accomplished fast – Part 2 >